Buddhanews.com

현대불교

나쁜 생각이 나쁜 벗이요, 좋은 생각이 좋은 벗입니다. 나쁜 생각을 따르면 걱정이 생기고, 좋은 생각을 따르면 기운이 생깁니다.

–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제828호 2011년 3월 23일 수요일 (음력 2월 19일 · 불기 2555년 · 주간)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도 아름다운동행을 비롯해, 로터스월드, 지구촌공생회, 진각복지재단 등에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김희옥 총장)가 대학 최초로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무기한 모금운동을 3월 16일 교정 등에서 시작했다. 김희옥 총장은 "일본 국민들이 하루빨리 이 참화를 수습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위로의 마음을 보태고 싶다"며,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이웃나라의 어려움을 보살필 줄 아는 진정한 동국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5년 뒤 청년불자 30% ↓

젊은이들 불교 떠난다… 청년불자 needs 파악조차 안된 채 신심만 강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도 치고, 거름도 잘 줘야 한다는 것은 자연의 진리다.

불교계가 불교중흥이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불사가 필수적이다.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 소홀한 경우가 많다.

현재 불교계 상황은 각 분야의 외형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신도간 소통 및 결속력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불자의 급격한 이탈이다.

통계청 연령별 종교인구조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1995년 174만여 명이던 25~34세 불교 인구는 2005년 144만여 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1995년 15~24세 불교인구가 157만 여명밖에 되지 않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005년 15~24세 불교인구는 129만여 명에 불과했다. 때문에 청장년 불교 인구는 2015년 인구조사에서 100만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해야할 점은 1995년 당시 25~34세였던 174만여 청년불자들이 2005년 34~44세 인구에서 146만여 명으로 줄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생활에서 불자네트워크의 미흡, 포교활동의 저하로 불자 인구 자체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간 대립이 극심해지고,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약화로 불심을 가진 젊은 불자들조차도 불자임을 숨기는 현상이 일어난데 기인한다.

젊은 불자들 이탈, 왜?
취업난에 종교활동 감소
불교내부는 인재난 심각

20~30대 불자들의 감소는 1990년대 이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비롯해 전국 사찰의 청년회와 중고등학생회, 어린이 법회 등 계층포교 활동의 급격한 위축에서도 엿볼 수 있다. 2000년 23개 지부, 171개 지회(학교단위 불교동아리)였던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의 경우 현재 20개 지부, 144개 지회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선 불교동아리와 어린이법회 관계자들은 "최근 월례법회 참가자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용석 대불련 간사는 "대불련 지회에서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 최근에는 회원 현황조사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선 지회의 경우 동아리 활동이 지장 받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 불자들의 이탈은 사찰을 문화재로서의 명맥과 기도처로서의 역할만을 남긴 채 생활 속에서 불자들을 이끄는 불교 자체의 생명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젊은 불자들의 부족은 불교계 내부에서 더욱 드러난다. 이는 취업난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종교활동에 매진하지 못하는 데도 기인하지만 임금 수준 등 사회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 신심에만 의지해 불교계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주경 스님은 "불교계에 만연한 주먹구구식 인사관리 행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신심으로 헌신함이 기본이라 해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범 · 노덕현 기자





일본 지진 참사 애도시 **청화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일본인의 뼈



흔들, 흔들, 흔들
지진이 엎질러 놓은 거대한 바닷물에
집도 차도 배도 둥둥 떠 쓸려가는
한낱 작은 나뭇잎이 되다니!

저것들, 한 순간에
물 위에 뜬 작은 나뭇잎이 되게 한,
저 지진이 엎질러 놓은 거대한 바닷물.

그 바닷물에
출렁출렁 엎질러진 사람들
다 쏟아져,
목숨마저 흔적 없는 그 빈 그릇들은 또!

우리의 몸이 아니라
지진이 엎질러 놓은 거대한 바닷물 앞에서는
이제 神도 무엇도 말하지 말고
머리 숙여라

인간의 모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니더라.

허나 아무 것도 아닌 그 곳에
번쩍하고 다시 보이는 것
무어나 부서지는 그 재앙 속에서도
금가지 않는 굳고 굳은 일본인의 뼈,

그것이 있어
아 보기 드문 그런 뼈가 있어
세계의 손이 모여 영차영차
저 널브러진 먹바위들 들어 내주면,

거기 왜
지진도 흔들지 못한
허리 펴고 일어서는
눈빛 형형한 얼굴이 없겠느냐.

"부처님 욕되게 하는 패륜아"라니

맑고향기롭게 前 이사, 덕 현 스님 비난

법정 스님이 만든 '맑고향기롭게'의 갈등은 덕현 스님의 잠적과 3월 2일 이사진의 일괄 사직으로 일단락된 듯 했다. 하지만 최근 맑고향기롭게의 前 이사가 길상사를 떠난 덕현 스님을 정신이상자로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윤청광 前이사는 한 교계신문에 기고한 '법정 스님께 참회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S대가 아니라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열 번 받았더라도 정신분열증, 과대망상증, 피해망상증, 자폐증 등 이상증세가 없는지 정신 상태부터 전문의사 검증을 받은 뒤에 제자가 될 것을 허락하라. 훗날 은사를 욕되게 하고 부처님을 욕되기 하는 패륜아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대 출신의 덕현 스님을 정신이상자로 취급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길상사 신도 도명 보살은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덕현 스님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글을 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작태다. 떠난 분은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2일, 당시 맑고향기롭게 이사진은 사과문을 통해 "최근 이사장 덕현 스님을 둘러싸고 야기된 불행한 사태에 대해 깊이 참회하며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 것에 엎드려 정중히 사과한다"고 했다. 추후 입장표명하겠다던 이사진이 2주일 후 덕현 스님을 성격 이상으로 몰았다.

이상언 기자

"정부와 대화해야"

설정 스님, 종단과 이견

"불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어떤 중생하고도 대화할 소임이 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현 종단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정 스님은 3월 16일 덕숭총림 향적당에서 진행된 장기 기증 관련 인터뷰 중 이같이 밝히며 정부 · 여당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설정 스님은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상대가 누가됐건, 어느 계층이 됐건 불교는 전방위적인 소통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828호 CONTENTS

▶5 일본을 도웁시다
불교계 일본 돕기



▶6 나눔
수좌 스님들 장기기증 활발



▶13~15 특집
자성과 쇄신 5대결사를 위한 신도대중공사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사경 및 독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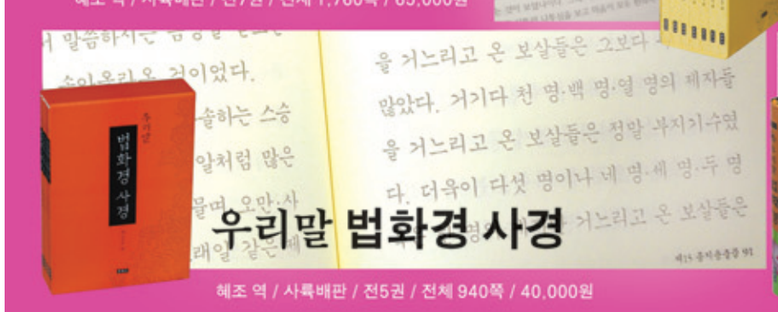
'경전의 왕 법화경'의 유려하고 현대적인 우리말 번역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단순히 경전을 베껴 쓰기만 해도 이 정도이니 하물며 경전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뜻의 본질을 알아 설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의 복덕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혜조 역 / 사륙배판 / 전7권 / 전체 1,760쪽 / 65,000원



혜조 역 / 사륙배판 / 전5권 / 전체 940쪽 / 40,000원



혜조 역 / 국판양장 / 630쪽 / 18,000원



관세음보살보문품
한문 및 우리말 사경
혜조 역 / 사륙배판 / 86쪽 / 4,5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